



##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연합뉴스 노조가 회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노조는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분야별 소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분야별 소위는 공정정보도 시스템, 사내 민주화 및 인사 시스템, 근로여건 및 콘텐츠 경쟁력 개선, 지역본부 시스템, 차별해소, 뉴스통신진흥법 관련 대응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박정찬 사장 재임 기간을 포함해 그동안 불거졌던 불공정 보도, 불합리한 인사, 사내 민주화의 역행 문제를 비롯해 연합뉴스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분야별 소위는 노조의 파업이나 박 사장의 제안

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공정정보도 시스템은 공정정보도 정착을 위해 연구작업을 진행해온 공정정보도위원회가 맡았다. 사내민주화 및 인사 시스템, 근로여건 및 콘텐츠 경쟁력, 차별해소는 제작과 비(非)제작 파트 조합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지역본부 시스템은 지방 조합원이 주축이 되되 지방근무 경험이 있는 본사 조합원도 참여해 지방과 본사간 이견을 조율한다.

분야별 소위는 공정정보도 시스템과 같이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야는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차별해소와 같은 분야는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연구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위는 분야별로 모임을 하지만 수시로 간사단 회의와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소위 명단이다.

▲공정정보도 시스템 = 고흥규(간사) 장용훈 남광식 강훈상 류지복 김정은

▲사내민주화 및 인사 시스템 = 권혁창(간사) 최춘환 김범현 김경희 권영전 윤인주

▲근로여건 및 콘텐츠 경쟁력 개선 = 이동철(간사) 이울 박상현 이광빈 서명곤 김은정

▲지역본부 시스템 = 홍인철 최찬홍(간사) 강영두 형민우 김도형 임형섭

▲차별해소(비제작부서·연봉사원 문제) = 경수현(간사) 오정훈 이용석 고동선 유소정 강성철

▲뉴스통신진흥법 관련 대응 = 정준영(간사) 김남권 임화섭 류지복 임주영

### <분야별 소위 소개>

#### ▲공정정보도 시스템



**고형규** - 파업 중반부터 주요 언론사들의 공정정보도 장치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왔다. 전문가들의 논문을 읽으며 언론 관련 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이야기도 계속 들어왔다. 공정정보도 위원회는 이전에도 활동을 해왔고 현재 분과로 조직의 틀이 바뀌긴 했지만, 이 부분에 신경 쓰고 매달려온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라는 회사에 걸맞고 필요할 법한, 공정정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겠다. 또 제도가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는 데 필요한 실효적 수단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 ▲사내 민주화 및 인사 시스템



**권혁창** - 연합뉴스의 인사는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독단에 의해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가 3년간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사내 민주화 역시 인사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소통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논의할 것이다. 앞으로는 연합뉴스의 인사 규정과 단체협상 등을 검토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사내 민주화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서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타 언론사나 기업들, 외국 사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고 그 중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 ▲근로 여건 및 콘텐츠 경쟁력 개선



**이동철** - 뉴스y 개국에 따른 연합뉴스 노조원들의 근로여건 변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에 태스크포스에서 조사했던 보고서를 참고해 각 부서의 근로 여건을 파악하고 노동 강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인터뷰를 하는 등 자료 조사를 할 것이다. 각 부서뿐만 아니라 보도국 파견자까지 아

우를 것이다. 특파원들은 리포트 제작 때문에, 지역 본부 기자들은 방송을 전담하느라 업무 부담이 가중됐는데 그런 부분도 다룰 예정이다. 또, 근로 조건 악화로 콘텐츠 경쟁력도 함께 떨어졌다고 판단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찾으려 한다.

#### ▲지역본부 시스템



**최찬홍** - 대의원들을 통해 각 지역취재본부를 상대로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다. 각 지역본부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광고, 인력수급 문제 등 소주제 3~4개를 추린 뒤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본부 시스템 분과에는 지역취재본부 사원뿐만 아니라 지방 근무 경력이 있거나 영업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본사 사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취재본부가 당면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므로 사원들끼리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공정보도'라는 새로운 의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안들도 나오고 있다.

#### ▲차별해소



**경수현** - 첫 모임을 열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를 추렸다. 사내 비정규직, 연봉사원 문제, 여성 사원 복지 문제 등이 거론됐다. 비조합원 비중이 높은 비제작부서 사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의견수렴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원활한 논의를 위해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차례씩 만나기로 했다. 워낙 다양한 문제가 많은 분야인 만큼 현황과 문제 파악 위주로 당분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뉴스통신진흥법 관련 대응



**정준영** - 뉴스통신진흥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회사 안팎에서 나왔던 논의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뉴스통신사 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검토하는 단계다. 그간의 논의를 점검해 이를 토대로 뉴스통신진흥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